

레이저 용접·수압 成型... 고성능 저비용

(성형)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동차 강판 첨단공법들

포스코 광양제철이 오는 10월부터 양산하는 HPF 강판은 고강도·경량화 추세인 국제 자동차 강판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갖도록 할 핵심제품이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는 기존에 개발된 맞춤형 레이저 용접기술(TWB)·수압가공(HF)설비를 확장,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한편 제조공정을 단순하고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WB(Tailor Welded Blanks·맞춤형대용접강판)=뒀을 제단할 때 부위별로 다른 전을 이용해 실로 케메드, 자동차용 부품의 부위별로 서로 다른 재질·강도·두께를 가진 강판을 레이저로 용접하는 방식이다.

이러 TWB공법을 통해 2004년 110만개, 2005년 310만개를 생산했다. 올해 설비를 증설해 500만개에 이어 내년에는 670만개(자동차 220만대 분량)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제품은 국내 13개 차종, 26개 부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중국·인도·말레이시아 등 해외의 10개 차종, 16개 부품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복잡한 모양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여러 형태의 프레스로 가동한 후 용접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강판을 튜브형태로 만들어 튜브안으로 높은 수압을 가해 제품을 성형해내는 최신 공법이다.

엔진을 지탱하는 받침대 부품을 만들 경우 기존에는 8개의 부품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하나의 튜브 제품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내년 80만대 분량 생산

이에 따라 생산공정 단순화는 물론 용접부위 제거로 안전성과 강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종량은 기존 공법보다 25~35%, 제조원가도 15~25% 줄었다.

광양제철소는 이 공법을 통해 지난해 17만개, 올해 53만개에 이어 내년에는 160만개(자동차 80만대 분량)를 생산해낼 계획이다.

자동차의 기본 뼈대인 프레임과 엔진의 배기계통에 주로 적용되는 HF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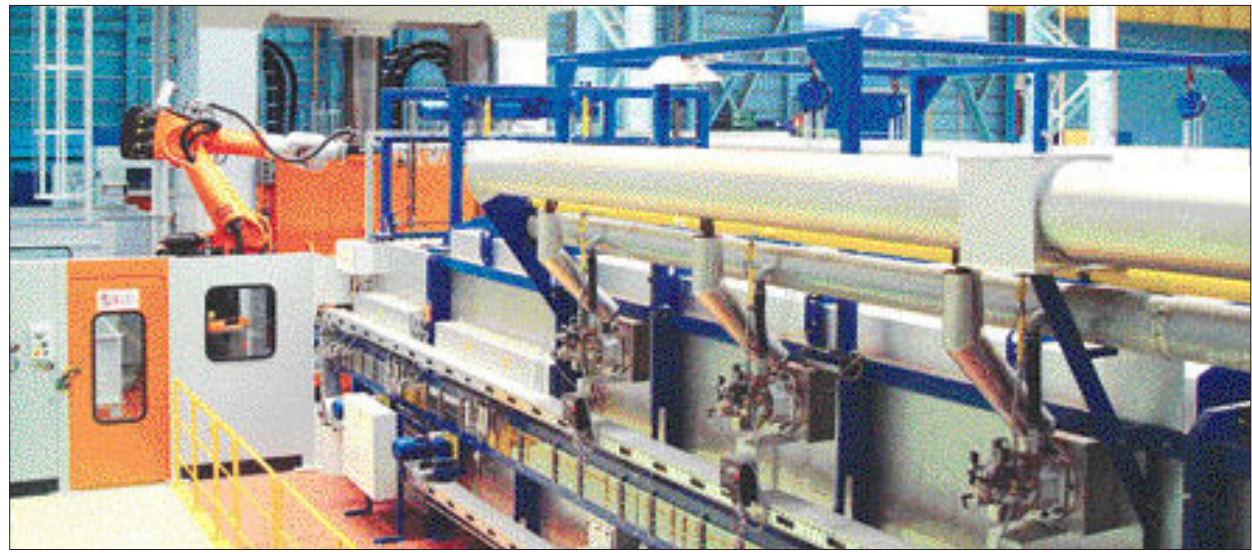
은 현재 국내 3개 차종 6개 부품, 해외 1개 차종 1개 부품에 공급되고 있다.

◇고급 자동차강판 생산=광양제철소는 최근 연간 40만 대 가량의 고급 자동차강판을 생산하는 6 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아연도금강판라인)을 완공했다.

이 생산라인 준공으로 용융아연도금 강판 210만대를 포함해 연간 자동차강판 650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추으로써 세계 최대의 철강사인 포스코의 아라셀로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동차강판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오는 2008년까지 1조6천억원을 더 투자해 자동차강판 생산 설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고급 자동차강판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핫 프레스 포밍 생산라인.

(광양제철소 제공)

제품무게 20~35% 줄여

사이드 판넬의 경우 기존 공법에 따르면 1개의 바디와 3개의 보강재가 들어가는데 TWB를 적용할 경우 1개의 강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품의 무게를 20~35% 줄일 수 있고, 제조원가도 10~25% 절감할 수 있다.

광양제철소는 2003년 공장을 가동한

“매국노·작위받은 자 등 4부류 후손들 소유 재산이 환수 대상”

친일재산조사위 이준식 상임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준식 상임위원은 13일 “을사오적 등 주요 친일인사 400여명의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을 우선적인 국고 환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만간 관련 조사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환수대상 재산은.

▲법률상 네 범주다. 매국노와 일제로부터 작위받은 자, 일본 중의원을 지낸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던 자, 이 네 부류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갖고 있는 재산이 환수대상이다.

- 가급적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나.

▲그렇다. 우선적으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을

포함해 400여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우선 확실한 친일파의 재산을 먼저 조사한다.

- 환수 재산의 형태는.
- ▲대부분 토지다. 그 외에는 회사 등의 자본이 있을 텐데, 주식관계 등이 있으므로 회사 전체가 친일행위자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나.
- ▲위원회가 직권으로 친일재산을 조사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전자는 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후자는 주로 법인이나 지자체에서 조사의뢰를 하는 경우인데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보기에 타당하면 개시결정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기록검토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

자가 친일파가 맞고 해당 재산의 취득과정이 친일 행위의 대가임이 인정된 경우,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중간에 제3자에게 선의 취득된 것이 아닐 경우, 즉 친일파 후손들에게 상속, 유증된 것이 판명될 경우여야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 후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 그 외의 활동은.
- ▲국내 토지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토지에 대해 조사위가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가 있다.
- ▲검찰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 받아놓여진 토지들에 대해 직권조사 형태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았다. 지자체와 검찰이 조사를 의뢰해 온 친일행위자 소유 의심 재산 3~4건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연필뉴스

21~29일 8월 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작통권 환수 최대 논란

문광차관 경질·사면 남발도 도마에

오는 21~29일까지 미니회기로 열리는 8월 임시국회가 뜨거운 정국 현안들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6월 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열리는 것이지만, 전직작통권 환수문제·유진룡 문광부 차관 경질문제·노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문제 등 예민한 ‘사건’들이 출몰한 상태여서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전직작통권 환수=우리당은 전직작통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회 국방위를 통해 우리 군의 방위수준 및 작전통제능력 등 사실관계를 위주로 적극적인 옹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야당이 전직작통권 환수를 한미동맹 균열로 해석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막연한 정치공세라고 보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일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작통권 환수방안에 대해 ‘신 안보장사’라며 총력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전직작통권 환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인데다,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 국민적 여론에 호소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운다

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7일 열리는 국방위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상대로 부적절성을 추궁하고,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진룡 차관 경질문제=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을 둘러싸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유 전 차관의 경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에서 따져볼 수는 있지만, 유 전 차관의 주장만을 놓고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압력과 보복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을 폐가망신시킨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을 파가망신 시키는지 반드시 확인 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사면문제 남용=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된 이번 사면에 대해 ‘막판 떨어 사면’이라고 규정,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당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권의 공세를 차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정치권 ‘호남 구애’ 행렬

한나라 강대표 사과 발언 이후 한화갑·천정배·이재오 등 방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호남 사과 발언 이후 각 당 주요 인사의 호남 방문이 줄을 이고 있다.

이들의 방문은 강 대표의 발언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파의 호남 구애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대표의 사과 발언 직후인 11일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 출동, 광주·전남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다짐했다.

열린우리당 복귀 이후 조용히 ‘당심’을 파악해 온 천정배 의원은 11~13일 광주·전남지역

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천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지역 원로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당원 등을 두루 만나 호남민심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 의원은 민심 회복방안과 법개혁세력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호남 방문이 향후 대권행보에 대비하는 ‘바닥 다지기’ 성격도 내포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오는 20일까지 20일간 ‘민생탐방 국토순례’ 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도 1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방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오후 늦게 영암군 신북면 명동리를 방문, 이곳에서 농민들과 과수원의 잡초를 제거하며 함께 땀을 흘렸다. 그는 또 당원·당직자, 농민, 마을 주민 등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민심 파악에 열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근 출시된 SONY의 명품들

2006 소니 만다라 여름모형특파

신시리즈 **소니 디지털카메라** **소니 디지털카메라** **소니 디지털카메라**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 (062)522-2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 (062)514-3000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역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주력 공법의 특징

우주력 공법의 적용분야

우주력공법기

우주력공법기